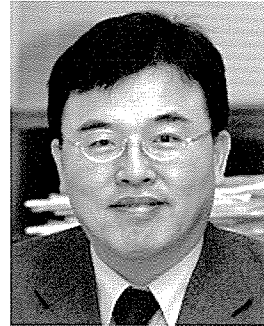


2006년도 한국경제 전망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온기운**



지난해 4월을 바닥으로 경기 회복 중

최근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월을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기 사이클을 알아보는데 이용되는 대표적 지표중 하나인 통계청 발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4월을 바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지표(통계청이 올해부터 개편)가 대부분 뚜렷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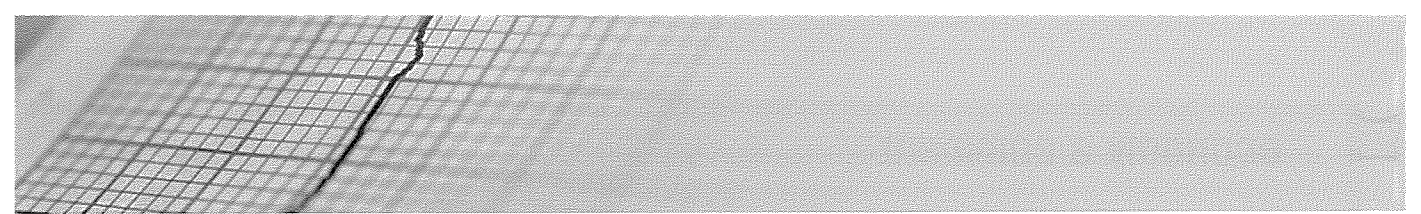
즉,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활동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기성액은 월에 따라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 상황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경기회복 추세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표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 즉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전년 동기비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2.7%를 바닥으로 2분기 3.3%, 3분기 4.5%, 4분기 5.2%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에서 올해는 정부와 많은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대로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제성장률 상승은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004년 0.5%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2% 증

가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생활필수품 중심의 비내구소비재 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소비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과 서비스업 활동 호조 등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향 조정 등에 따른 역(逆)자산 효과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2004년 3.8% 증가에서 지난해에는 5.1%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그동안 산업생산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생산능력 증가율이 이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설비투자조정 압력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향후 설비투자는 소비회복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대기업의 투자계획 확대 및 기업투자심리 개선 등에 따라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리상승과 수익모델 부재 등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설투자는 2004년 1.1% 증가에서 지난해에는 0.3%로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



졌다. 주거용 건물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했으나, 토목건설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향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8·31 종합대책과 재건축, 청약제도 등에 대한 추가대책에 따른 민간부문 주택경기 위축으로 부진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난해 2,846억달러로 전년비 12.1% 늘었다. 수출 증가율 자체는 2004년의 31%보다 낮아졌으나 절대규모 면에서는 하루 수출금액이 11억달러를 넘는 등 수출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 등 BRICs와 유럽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에서는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20%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1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화강세와 원유가 불안,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포기 등에 따른 세계 각국의 동반 금리인상 등의 영향 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급증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확대 등으로 전체 수입도 최근 크게 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가 줄고 이에 따라 대외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

경기의 향방을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앞으로 한동안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인구직 비율, 소비자기대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종합주가지수, 기계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총유동성, 건설수주금액, 장단기금리차, 자본재수입액 등 10개 지표로 구성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해 1월을 바닥으로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6개월 정도 후까지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기대지수가 최근 회복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는 BSI는 지난해 9월 이후 올 3월까지 계속해서 기준치인 100을 웃도는 등 이미 바닥권을 탈출한 모습이다. 체감경기가 개선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경영도 공격적으로 하게 돼 일정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6개월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소비회복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만 올 3월 소비자기대지수가 기준치인 100은 넘었지만 전월보다 0.1 포인트 낮아져 소비심리가 다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사이클은 여전히 불안

당분간 경기회복세는 이어지겠지만 몇가지 불안요인이 있어 이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서는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들어 급격히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포기에 따른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 확대로 인해 하반기에 달러화 약세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 떨어질 여지가 많다. 시티그룹과 같은 외국기관들은 올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 요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누적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에 따른 외화공급 증가, 위안화 추가절상 가능성 등까지 감안하면 원화의 추가절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낸 반면,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가치가 크게 떨어져 100엔당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 2004년말 1009원선이었던 원/100엔 환율이 3월 중순 현재 22% 가량 절상돼 830원선을 나타내고 있다.

원화절상은 수출에 악영향을 주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이것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올들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30억달러의 흑자는 축소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등을 포함시킨 경상수지도 올 당초 예상 16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복병은 유가다. 지난해 한 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12월 19일 57달러선까지 떨어졌으나 그후 다시 급등해 한 때 7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기에 이르기도 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해 12월 1일 51달러선에서 급등해 올들어 다시 6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유가급등은 단기적으로는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석유시설 테러 등 정정불안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요국들 사이에 가열되고 있는 원유 확보 경쟁,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원유소비 급증에 따른 세계 원유초과 수요라는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유가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길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최근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하루에 장충체육관 용적의 4배 반에 해당하는 230만배럴의 원유를 소비하고 연간 8억 배럴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유가 급등이 경제회복의 큰 악재다. 정부와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5%가 올 두바이유 평균가격을 50달러 전반(정부 54달러, KDI 51달러, 한국은행 56달러)으로 가정한 바탕위에서 도출됐음을 감안하면 유가 향방 여하에 따라서는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가는 안정, 금리는 상승세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 등 물가불안요인이 잠복해 있지만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정부 목표 범위내에서 소비자 물가가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7%에 그쳤다. 올들어 연초에 소비자물가가 다소 크게 올랐으나 당분간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중 농수축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는 물가로서 통화신용정책의 목표가 되는 근원인 플레이션율(Core Inflation)도 지난해 2.3% 상승에서 안정돼 있다. 앞으로도 물가는 경기가 과열로 치달지 않는 한 공산품 가격경쟁 심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